

결핵연구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 개원식 개최

대한결핵협회(회장 문영목) 결핵연구원은 11월 5일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신 청사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정부가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비전 하에 2010년 하반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 6개 국책기관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결핵연구원은 1970년 설립 이래 전국결핵실태조사를

주도하였으며,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BCG 백신생산, 연구 및 검사업무, 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결핵 연구, 교육훈련 및 자문기관으로서 거듭나고자 한다. 개원식에는 결핵연구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전병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관,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김종록 충청북도 청무부지사, 신계철 결핵 및 호흡기학회장, 박승규 국립마산병원 원장, 공석준 국립목포병원 원장, 윤미향 통일부 하나원 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슈퍼결핵 정책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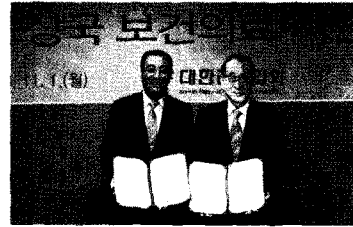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29일 오후 2시 "다제내성과 광범위내성 결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제내성, 광범위내성 결핵의 현황과 국제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송선대 국제결핵연구소장의 주제발표와 크리스토퍼 다이(Christopher Dye) 세계보건기구 건강정보국장의 특별발표 및 클린턴

이 배리(Clinton E. Barry) 미국국립보건원 결핵연구부장, 토론자로 단국대 호흡기내과 박재석 교수, 시립서북병원 서해숙 흉부내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MOU 체결

우리협회는 지난 11월 1일(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한광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의료 지원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2004년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자원 북한 보건의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 및 재외동포 등의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정보 공유와 국제적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결핵협회 본부 및 중앙지회(구 서울지부) 이전

대한결핵협회는 1974년 당산동 청사 건립 이후 38년 만에 본부를 서초구 우면동 14번 지(구 결핵연구원)로 이전하였다. 새로 이전한 청사에는 본부와 협회 중앙지회(구 서울지부, 복심자위원 제외)가 이전해 결핵퇴치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결핵조기퇴치사업추진단 발족

질병관리본부는 대한결핵협회 청사 내에 「결핵조기퇴치사업추진단」을 설치하여 PPM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 및 취약계층 검진사업 등 다양한 국가결핵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결핵조기퇴치사업추진단」은 1단계 사업으로 201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 1/2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2단계로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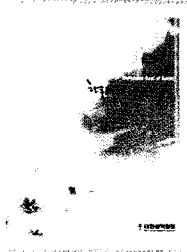
제41회 세계항결핵연맹 연례회의 독일 베를린서 개최

우리협회 문영목 회장은 2010년 11월 11일(목)~15일(월)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제41회 UATLD 연례회의에 참석한다.

우리협회 결핵연구원은 UATLD 회원국으로 연례회의에는 매년 125개국 260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TB, HIV and Lung Health - from research and innovation to solutions"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차회의에는 문영목 회장 외에도 김희진 결핵연구원장, 김창기 진단검사의학부장이 참석한다.

크리스마스 쉼 도감 발행

결핵퇴치기금 조성을 위해 매년 발행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쉼에 대한 이해를 도울 「한국의 크리스마스 쉼」이 출간되었다. 크리스마스 쉼은 우리나라 결핵퇴치 사업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한편, 쉼 수집가들에게 수집 대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2003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쉼 도감 3판이 발행된 바 있으며, 이번 발행은 7년 만에 4번째로 발행된다.



수필집 「쉼터의 사색」

전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검사소장이자 수필가 김무룡 씨가 수필집 「쉼터의 사색」을 발간했다. 2001년 한국수필로 등단, 「차유의 수필」, 「명상의 수필」을 쓰고 싶었다던 지문이는 이제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한 방향으로 글을 쓴다고 고백한다. 책은 총 3개의 섹션으로 각 10편씩 30편의 수필이 묶여져 있다.

